

# 양호실에서 치과응급처치에 관하여 (A guide to dental first aid)

의학박사 김 중 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진단학 및 예방치과학교실

## 차례

- 1. 개요
- 2. 응급처치
  - 가) 동통을 수반한 응급상황들
  - 나) 기타 치과적인 문제들
- 3. 구강영역의 외상의 예방에 대하여

활동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양호교사들께서 업무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 2. 응급처치

### 가) 동통을 수반하는 응급상황들

어떠한 경우이든지간에 치아의 손상은 주로 심한장난, 싸움, 격한 운동경기, 추락, 자동차사고 등으로부터오는 외상의 결과로 온다. 그러나 때로는 비교적 서서히 발생하여 급작스런 동통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만날수 있다. 이에 따른 몇가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1. 악골골절이 의심될 때

악골골절이 의심되는 학생이 양호실에 왔을 때 양호교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악골골절인 경우에는 심한 통증과 함께 턱을 잘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윗니와 아랫니가 정확하게 다물어지지 않으며 아래턱이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손상된 악골의 고정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양호교사는 탄력붕대나 붕대 또는 삼각건을 이용하여 턱과 머리부분을 둘러 싸서 고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생에게는 입을 벌리려고 하지말 것을 주의시킨후 가까운 치과의원으로 후송하도록 한다. 치과의사는 외과적 수술

## 1. 개요

모든 구강영역의 질환들이 치과의원으로 응급처치를 위해 급히 달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악구강 영역의 외상시에는 치과의원을 방문하기전 양호교사들이 양호실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을 안다면 잃을뻔했던 치아를 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만일 한 학생이 친구의 머리에 부딪히거나, 계단에서 구르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치아가 부러지거나 턱뼈가 골절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즉각적인 치과치료를 요하는 응급상황이 된다. 그리고 치료를 받지않은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인하여 동통과 발열 부종을 동반한 치근단농양 또한 지체할수 없는 응급처치를 요하는 상황이 된다.

이번의 기고에서는 양호실에서 접할 수 있는 구강영역에서의 응급상황들에 대한 처치와 기타 치과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도와 학교보건

## □ 양호실에서 치과응급처치에 관하여

을 통해 뼈를 제자리에 맞추고 치아를 강선으로 묶어서 다시 뼈가 붙도록 한다.

### 2. 탈구된 치아

외상성으로 치아가 완전히 치조와에서 빠져나와 발거되어진 경우에는 바닥에 떨어진 치아를 조심스럽게 집는다. 이때, 치관부위를 주의하여 잡아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아의 뿌리 부분은 치아의 재부착에 관여하는 치주인대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부위의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치아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주의깊게 씻은다음 치아가 빠져나온 치조와로 다시 밀어넣는다. 이때, 통증으로 인해 다시 밀어넣기 곤란하거나 너무 흔들려서 치아를 삼켜버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나, 우유, 또는 깨끗한 물이 담긴 컵 속에 치아를 담거나, 식염수나 물에 적신 거즈 또는 적신 손수건에 싸서 치과의사에게 외상을 입은때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 치아를 다시 재이식술에 의해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약 90% 정도 된다.

### 3. 치아가 부러진 경우

치아에 순간적이고 빠른속도의 외력이 가해졌을 때에는 치아는 부러진다. 비록 부러지거나 떨어지거나 치아가 아프지는 않다 할지라도 가능한 빨리 치과의원을 방문하게 하는 것이 좋다. 손상된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잘 씻은 다음 얼음주머니로 압박을 가해 부종을 억제한다. 떨어지거나 치아의 조각은 찾을 수 있으면 모두 찾아서 치과의원을 방문할 때 가지고 가면 부러진 부분을 원래 치아에 다시 재접착을 시도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딱딱한 음식이나 돌을 씹거나, 치아로 병마개를 따는 경우에도 치아의 파절이 올 수 있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차후 치과의원에서의 검진을 요한다.

### 4. 치아의 불완전 탈구

부러지지 않았으나 외력에 의한 충격을 받아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치아의 동요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외상성 충격으로 인해 흔들린 치아는 치아내부의 신경과 혈관조직으로 되어있는 치수조직이 손상을 입어 괴사가 일어나므로 결국은 치아가 생활력을 잃고 치아의 변색이 오게되며 치근단농양을 일으키게된다. 동요가 있는 치아들에대한 고정이나 우선되어야 하며 근관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과의원에서의 정기적인 검진을 요한다.

### 5. 혀, 입술 등의 연조직 외상

혀의 외상은 흔하지는 않지만 혈관분포가 많은 부위여서 출혈이 많다. 지혈을 하기도 힘든 부위이기 때문에 치과의원에서의 의뢰를 서둘러야 한다. 입술부위의 외상은 심한 부종을 가져오므로 얼음주머니로 상처부위를 압박하여 부종을 억제하고 상처부위의 오물들을 생리식염수 등으로 씻은다음 치과의원으로 의뢰한다.

### 6. 농양(Abscess)

구강내의 농양은 치아나 치은의 감염에 의해 발생된다. 증상으로는 동통부종 그리고 고름의 누출등이 있다. 치아의 감염 즉 치아우식증은 절대로 자연치유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치성감염에 의한 농양을 그대로 방치하면 인접한 치아주위조직의 파괴와 함께 결국 전신건강을 위협한다. 때때로 소아과의사나 외과의사나 내과의사들이 환자로부터 근원을 알수 없는 발열이나 불편함을 호소 할 때 치과의사에게 감염의 근원을 파악하기위해 구강검사를 의뢰해 오는 일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양호실에서는 아스피린(Aspirin) 폰탈(Pontal)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등을 해열과 진통을 위해 투여할 수 있다. 치근단 농양이 있는 치아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서 근관치료나 치주치료로서 치아를 구할 수 있다. 치아를 발치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지간에 가장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 7. 치통

치통은 비록 참을 수 있는 정도이거나 지속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치아우식증이나 치근단농양이 진행중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통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아스피린(Aspirin)을 치통이 있는 치아에 물고있게하는 것은 구강점막에 화학(Chemical burn)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아주 뜨겁거나, 차거나, 단 음료나 음식을 피하게 하고 따뜻한 물로 양치하게 함으로써 구강내의 음식물잔사를 제거하게한다음 치과의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 나) 기타 치과적인 문제들

때로는 극히 응급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마는 치과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들 중에서 양호교사로서 알아두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1. 치아에 대한 충전물이나 수복물이 빠졌을 경우

탈락되거나 빠진 수복물 또는 충전물에 대해서는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함을 주지해야 한다. 충전물이 탈락한 곳은 음식물이 끼고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곳이어서 제2차 치아우식증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만일 충전물이 빠진 부위가 시큰거리거나 통증을 나타낸다면 앞에서 설명한 치통의 처치요령과 같다. 만일 탈락된 충전물을 삼키고서 당황하는 학생이 있다며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안심시키도록 한다.

#### 2.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칫솔질을 하거나 또는 잇몸에다가 조금만 자극을 가해도 쉽게 출혈이 될때에는 일반적으로 치주질환의 한 증상인경우가 대부분 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 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잇몸에서의 출혈은 치주질환의 초기증상으로서 그대로 방치하면 불쾌한 구취와 함께 치아주위조직을 파괴하는 치주병으로 진행되어 치아를 잃게 된다.

#### 3. 치아를 씹은 인공치관이 빠졌을 때

인공치관이 빠졌으나 원형이 손상받지 않았을 때에는 인공치관을 조심스럽게 종이나 손수건에 싸서 치과의원에 가지고 가면 경우에 따라 다시 부착시킬 수 있다. 인공치관이 부서진 경우에도 그 조각들을 잘 보관하면 치과의사는 재사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이다.

#### 4. 치열교정용 강선이 파손되었을 때

치열교정을 위해서는 구강내에 복잡한 교정용 장치를 장착시키는데 때로는 구강내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작은 슝뭉치 또는 왁스덩어리 또는 꺼즈를 접어서 교정용 강선의 끝을 덮어 구강내 연조직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강선이 이미 협점막 속이나 혀 또는 잇몸에 박혀있다면 절대로 스스로 빼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즉시 치과의원으로 의뢰하는 것이 좋다.

### 3. 구강영역의 외상의 예방에 대하여

최근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의 양호실 전체이용자의 40.7%, 고등학교의 경우 41.4%가 교내에서의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느 연령층보다 신체적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기 학동에 있어서 사고에 의한 외상이 문제가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구강영역의 외상은 절대로 원래대로 치유되지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구강영역의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 격한 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치아를 보호하는 마우스 가드(Mouthguard)를 착용할 것
2. 각종 스포츠를 할 때에는 적당한 머리 보

---

□ 양호실에서의 치과응급처치에 관하여.....

호장비를 갖추것(Head gear)

3. 단단한 음식이나 물질을 심하게 깨물지 말 것
4. 치아를 사용해서 병마개를 따지 말것
5. 차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

구강영역의 외상뿐 아니라 모든 외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정서교육, 교내음악방송, 노후한 시설물이나 장비의정비, 사고발생가능성이 많은 구조물의 구조변경등 다각도의 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이 함께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